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2호 [루체 제25195호] 주제 105 (2016)년 2월 21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 사이의 조쌍방실통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한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공동구호
를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비상히 양양된 혁명
적기세로 당 제7차
대회를 통하여 폭풍
노도와 같이 진격해
나아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인민군대에
서는 드높은 훈련
열의로 전군이 용암
처럼 둘끓으며 훈련
의 날과 날을 이어
가고있다.

조선인민군 대련합
부대들 사이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쌍방
실통훈련이 3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훈련에서 조선인
민군 제91수도방어
군단관하 부대들은
방어전투임무를 조

선인민군 제105땅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 제1부총참모장은 공격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방향 전방지휘소
에서 쌍방실통훈련을 지도하시며
다른 2개 방향에서의 훈련은 영상
표시장치를 통하여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훈련장에서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
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중장 림광일동
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육군중장 조남진동지, 조선인민군 총
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전투훈련국장인
육군중장 방관복동지, 조선인민군 제91
수도방어군단장인 육군중장 김명남
동지, 정치위원 육군소장 김도운동지,

조선인민군 제815기계화보병사단장인
육군중장 고명수동지, 정치위원 육군
소장 주충남동지가 맞이하였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들과 공병
지휘관들, 각급 군사 학교 교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훈련은 부대들사이의 차단물설비 및
극복을 위한 쌍방실통훈련을 통하여 공
격과 방어작전능력을 확정하고 제기되
는 문제들을 찾아 대책을 세움으로써
혁명의 수도 평양을 적들의 그 어떤

침공으로부터도 믿음직하게 사수하기
위한 작전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
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쌍방실통훈련은 정찰기들로 주요
도로에 대한 정찰행동과 지령점들에
대한 드센 화력타격을 틀이대는것으로
시작되었다.

기계화련합부대들은 경보병구분대들로

기동로를 지배하고
있는 지령점들을
습격, 장악하면서 차
단물들에 대한 공병
정찰을 진행하고
전진보장구분대들을
진출시키였다.

조선인민군 제
91수도방어군단에
서는 3개의 주요방
향들에 설비한
차단물들을 전투
상태로 이전시키고
차단물통로를 개설
하려는 전진보장
구분대들의 전투
행동을 구속하는
한편 차단물계선으
로 진출하거나 그곳
에서 멈추어선 기
계화종대들을 반장
갑집중화력타격으로
소멸하는 전투행동
을 진행하였다.

주요지령점들을
타격하기 위해 날아
들던 무장직승기
들이 휴대용 고사

로케트의 명중사격에 산산이 부서
졌으며 각종 포들의 일제사격으로 직승기
록전대 착륙구역이 초토화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탄
들이 목표들을 통쾌하게 명중시키는
것을 보시고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치하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포병저격수라는 말이 나을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를 사의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차단물통로를 신속히 개설하고 타격대를 차단물계선을 극복하면서 공격성과를 확대하려는 기계화련합부대들의 파감한 전투행동과 견고하게 설비한 차단물

에 의거하여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공격을 저지시키는 헌법부대들의 완강한 방어로 하여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훈련장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끊어번 지었다.

훈련은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해치려고 피를 물고 날뛰면서 하늘에 대고 산대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매달려 죽을지 살지 모르고 너털거리고 있는 원쑤들을 마지막 한숨까지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고 야말 인민군장병들의 치솟는 증오와 천백

배의 복수심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쌍방실동훈련의 우결함을 평가, 지적하시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훈련을 통하여 치렬하고 엄혹하며 맹혹한 전쟁에 대처하자면 전쟁과 무관한 훈련, 전쟁 환경에 맞지 않는 훈련,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식 훈련은 백번, 천번 해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은 주체적 전쟁 판검과 립장을 확고히 세우고 모든 훈련을 실용적 실동훈련, 실용적 두뇌 훈련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작전과 전투를 능숙히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

관, 참모부 일군들의 주도성과 자립성, 창발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싸움마당에서 군인들을 승리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게 당 정치사업을 전쟁환경에 접근시킬데 대한 문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도록 훈련강령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훈련총화를 전투총화처럼 엄격히 진행할데 대한 문제, 천연요새를 이루고 있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효과적으로利用하여 임의의 계선에서 견고한 방어를 조직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싸움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맞게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 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 제7차 대회를 전투력 강화와 싸움준비 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총대로 담보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조국수호전에서 자랑찬 군공을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겸열비행 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 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신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겸열비행 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래 기종의 전투기들을 불의에 도로비행장에 호출하시고 협진에서 전투비행사들의 비행술을 판정검열하시였다.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중장 림팡일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육군중장 조남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대장 최영호동지, 대련합부대 정치위원인 항공군상장 손칠주동지가 맞이하였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가 참가하였다.

지침을 구르는 천동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푸른 하늘을 누비고 날아온 용용한 전투비행사들은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켜보시는 앞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공중전투비행 동작들을 맵시있게 수행하며 우리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평시에 뼈마해온 자기들의 조종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어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조작에 대한 판정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추격기들을 순박하고 자유자재로 조종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생소하고 불리한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조작도 정말 잘한다고 하시면서 겸열비행훈련을 불시에 조직하였는데 훈련이 아주 잘되었다고,

믿음직한 우리 당의 하늘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충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의 훈련을 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조국의 영광방위는 날씨와 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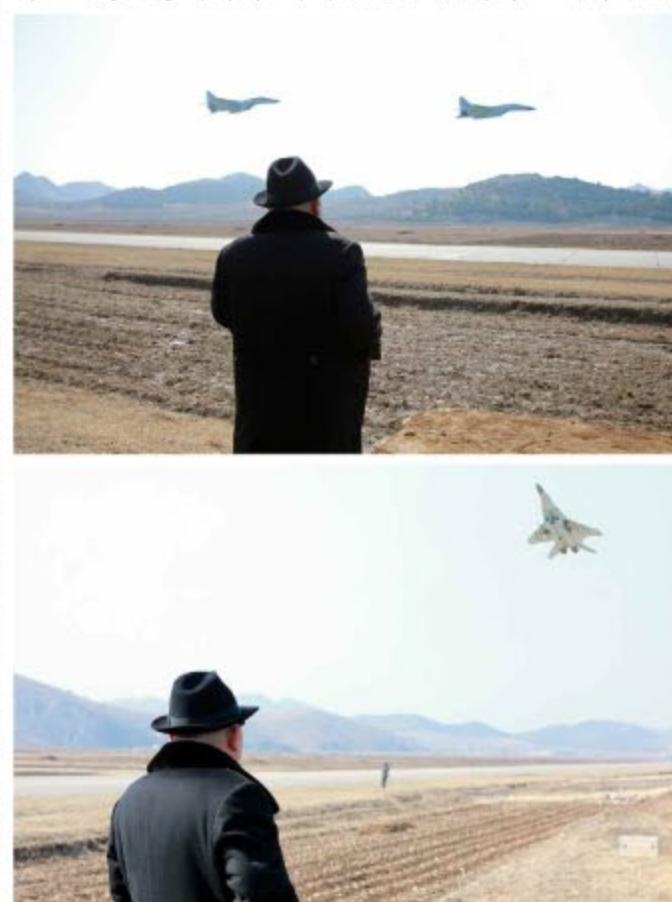
보아가며 하는것이 아니며 현대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전개되는것만큼 비행사들이 높은 사상적 각오를 안고 비행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싸움맛이 나게 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막겨진 공중전투임무를 험롭히 수행하는 유능한 전투비행사, 만능비행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거듭 만족해 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훈련 목표를 높이 세우고 훈련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항공군의 싸움준비 완성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전체 전투비행사들은 항공군의 싸움준비 완성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며 정력적 인지도를 주시는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의도대로 강도높은 비행

훈련을 생활화해 나감으로써 언제나 백전백승의 비행운만을 아로새기는 하늘의 결사대, 불패의 김정은비행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同志에 대한 만민의 열화와 흥모심에 퍼 발들려 주체제 86(1997)년 2월에 처음으로 열린 김정일화축전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울해에 스무번째 날을 맞이하는 날로, 조선혁명박물관은 조선혁명의 전통을 이로세우기로 하였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 모시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오리고기전문식당 로동자회관은 가정에서 마련한 물자들을 만수대혁명사적지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인민아의정상장로동자 김평심도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조선혁명박물관꾸리기에 떨쳐나선 둘레대원들이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막거진 파제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미지하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최철진은 많은 자제들을 보내주었으며 부원 김은남도 성의있는 지원으로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주체사상교양의 전당,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 이미지 할 일념에 대해 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최철진은 많은 자제들을 보내주었으며 부원 김은남도 성의있는 지원으로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대동강구역전의봉사사업소로 동자 정소희는 수십년

불멸의 꽃축전장에 뜨겁게 굽이치는 위인흠모의 열기

【평양 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기스페어 광명성절에 즐음하여 개막된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이 편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전국 조선의 영원한 태양이 신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열화와 흥모심에 퍼 발들려 주체제 86(1997)년 2월에 처음으로 열린 김정일화축전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울해에 스무번째 날을 맞이하는 날로, 조선혁명박물관은 조선혁명의 전통을 이로세우기로 하였다.

지난 기간 19차례에 걸쳐 해마다 진행된 김정일화축전은 33연례상의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었으며 참관자들의 수는 750여만명에 달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100여차의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축전이 개막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수십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을 청소년 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이 축전장을 찾았다.

17일 하루동안에만도 참관자수는 근 12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회세의 선군령장이시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이신 민족의 어버이, 인류의 태양이신

대전시대 앞에서 참관자들은 험준한 철령과 오성상의 칼바탕방, 풍랑사나 운초도의 배길을 헤쳐 가신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이 어려와 발걸음을 쉬이 옮기지 못하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불멸의 꽃축전장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

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수만상의 김정일화들로 아름다운 꽃바다를 절친절시대들을 깊은 감동속에 들어보았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은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추켜들고 당 제7차 대회에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갈 민족장병들의 철석의 의지가 어려워 있는 민족의 어버이, 인류의 태양이신

대전시대 앞에서 참관자들은 험준한 철령과 오성상의 칼바탕방, 풍랑사나 운초도의 배길을 헤쳐 가신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이 어려와 발걸음을 쉬이 옮기지 못하였다.

축전장을 참관한 해외동포들은 민족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꽃들을 전시한 김일성사회주의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애국충정의 대를 끊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외국 손님들도 불멸의 꽃들을 통하여 경모경을 이룬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경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알 수 있다

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는 태양의 꽃으로 영원토록 만발할것이라고 격정된 심정을 펴며하였다.

민족의 어버이,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전보적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심에 퍼 발들려 위인천송의 꽃바다는 백두산대국의 불명절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시대의 진군가

노래 《자력갱생 가치 높이 다시 한번 대고조로》를 들으며

혁명적 문학에 창다운 위력을 시대를 선도하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써 일으키는데 있다.

자력갱생으로 혁명적 대고조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여 우리 인민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시대의 앞장에서 고무주동하여 혁명적인 음악에 슬픔과 기쁨을 가로놓은 1990년대의 첫 번째 진군을 다그친데 나날에 창조된 노래 《자력갱생 가치 높이 다시 한번 대고조로》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자력갱생은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겸치하여온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구호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대인 1990년대는 우리 인민이 80년대 속도를 창조한 그 기세, 그 기백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힘차게 전진해온 위대한 투쟁의년 대였다.

1990년대에 창조된 노래 《자력갱생 가치 높이 다시 한번 대고조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풍우위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하여 자력갱생, 간고불투의 혁명정신으로 다시 한번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통해 잘 반영하고 그 판성을 위해 산악같이 일어선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데 적극 이어지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끌고 풍靡내 태리는 오늘의 충진군길에서도 이 노래는 시대의 진군가로서의 생명력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으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 모두에게 혁명적 투쟁열을 더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노래에 반영되어 있는 자력갱생에 관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천연번 정당하고 남이 갚수록 우리 혁명 실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 《자력갱생 가치 높이 다시 한번 대고조로》에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일터마다에서 자력갱생으로 통하고 자력갱생으로 기적을 창조하자며 자력갱생으로

주체 조선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현실이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이 노래에는 지난운 우리 조국의 어제 날의 모습만이 아니라 자강력제일주의로 승리하고 국력을 떨쳐가는 오늘의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기상이 함께 맥박치고 있으며 자력갱생의 위대한 생활력을 대한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이 구질마다 어려웠다.

락원의 정신, 강선의 기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가장 총격하게, 가장 한自然而 절실히 하여온 영웅적인민의 모습을 상징하는 시대아들이 노래의 첫 소절에서부터 사람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 준다.

락원의 로동계급이 모든것이 혹심하게

파피된 어려움을 조건에서 파연 무엇을

기울고 어떤 힘으로 텔신생산을 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을 키울수 있다.

우리 당과 혁명의 절실한 요구가 통속적으로 당의 호소에 화답할수 있는 근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이 나라의 경쟁한

로동계급과 무리를 마주하면서 빙주들이

나타없었던 그들의 두손에 그 모든

시련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자력자강의 거대한 힘을 안겨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강선땅에 지폐주신

자력갱생의 불씨는 삶에서 온 나라에 퍼져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커다란 철리마

앙양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거제한 철리마

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올수록, 경제적 난관이 크면 겪수록

자력갱생의 이 위대한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었으며 자체의 힘으로 겹쌓이는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벙우우에 주체의 기업의 터전을 닦고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1990년대에 당시에는 경제국방병진로선으로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을 영원한 투쟁본래에 대를 이어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자력갱생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심장

깊이 심어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고무주동하는 데서

이곳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국력을 강화함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루어갈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철리마를 태고

기적과 위훈을 떠밀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통을 이어온 자력갱생의 기치들이 만리마를 태고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대중을 당정책으로 톈하니 무장시키고

그 판례에 힘 있게 힘들리우는 데서 노래의 감화력과 생활력을 비활바없이

크다. 당시 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발표하고 남미다비약하고 전진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문학에 숨垢물에 당시의

사상과 의도를 친근만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는 정체적대과 뚜렷한 예술작품,

민족적인 정서와 흥취로 사람들의 혁명정

체로 힘을 더해 차세대에게 주어지는 노래

독립, 영자폭탄들이 광평쏟아져나오기

를 막아내고 힘을 더해 주고 있다. 벅찬 현실과

들을 투쟁의 불도가니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체험하고 시대의 진군가들을 더 많이

창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어 우리는 둑수단체세워인들의

의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

혁명의 년대기마다 통째한 편전편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물어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의 칼비랑속에서, 선군혁명의 준엄한 풍우속에서 키워주신 힘이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기상이 함께 맥박치고 있으며 자력갱생의 힘으로 및나개 실천하였고 오늘 날 경제건설과 혁무역 건설

병진로선도 자력자강의 힘으로 결사판월하고 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멘주먹으로 연길폭

란을 만들여 원주민을 죽여면 그 정신은

이땅에 우리의 힘으로 빛나는 전현

수령을 살피는 데에서 멘주먹으로

죽여고 어제에 역사에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철리마를 태고

기적과 위훈을 떠밀은 전세대들의 투쟁

정신, 투쟁기통을 이어온 자력갱생의

기치들이 만리마를 태고 강성국가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대중을 당정책으로 톈하니 무장시키고

그 판례에 힘 있게 힘들리우는 데서

노래의 감화력과 생활력을 비활바없이

크다. 당시 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발표하고 남미다비약하고 전진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문학에 숨垢물에 당시의

사상과 의도를 친근만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는 정체적대과 뚜렷한 예술작품,

민족적인 정서와 흥취로 사람들의 혁명정

체로 힘을 더해 차세대에게 주어지는 노래

독립, 영자폭탄들이 광평쏟아져나오기

를 막아내고 힘을 더해 주고 있다. 벅찬 현실과

들을 투쟁의 불도가니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체험하고 시대의 진군가들을 더 많이

창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어 우리는 둑수단체세워인들의

의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

하는 수령님 주체의 과학기술을 보여

주는 전시대들에 향했다.

첫 자동차 생산, 비단봉 생산, 신약제작, 항암제, 자동화, 첫 주제철생

산방법의 확립과 확대도입, 서

쪽 갈분전에 창립하여 당시의 해설과 함께 참

판자들자체로 과학기술의 원리

와 방법들을 깊이 세우할 수 있

도록 뒀던 것이 이제 왔다.

이곳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국력을 강화함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루어갈수 있습니다.

여러 구획들에 적절히 분산배

치되어있는 전자얼립장소들은

구내 품류망을 통한 전시 물들

에 대한 혁명적인 전자얼립장

환경이 조성되어 당시의 해설과 함께 참

판자들자체로 과학기술의 원리

와 방법들을 깊이 세우고 전시

장과 전시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시키고 나라와 함께 전시관에 해당

과 학기술을 조성하여 당시의 해설과 함께 참

판자들자체로 과학기술의 원리

와 방법들을 깊이 세우고 전시

장과 전시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시키고 전시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전시관에 미치는 영향을

한시바빠 역사의 오물통에 무섭게 격노하는 이

처놓어야 할 특등재앙거리 나라 민심의 폭발

반년만에 죽사에 일찌기 없었던 주제 조선의 수소란시험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원전성공은 이 행성을 통해 들었다는 것이다.

자주와 선군으로 강대국들의 전횡과 독단위주로 굳어진 이 행성의 정치 공식을 일변시킨 이 특대 사변들은 전보적인 류를 감격과 환희의 열풍속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수소란까지 보유한 세계핵강국, 마음먹은대로 위성을 좌우하는 우주강국의 존엄 높은 기운으로 펼쳐지는 우리 거래의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랴.

회승총으로 강도 일제의 기관총에 맞서고 보병총으로 승냥이 미국人们的 대포와 맞섰던 페트로나스가 용어리저 있는 우리 민족이기에 수소란보유국, 우주강국의 일원이라는 그 자부심으로도 가슴이 넓어지고 걸음을 당당하게 되었다.

비록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은 달라도 온 거래가 민족사적정거를 진실로 경축하는것이며 불미스러운 파거로 멋지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깨닫고는 것으로 말없는 축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박근혜민은 청빈이다.

수소란폭음에 덴겁한 개짖는 소리

무변 광대한 우주공간을 짹 채 우며 울려 퍼진 우리 수소란시험 원전성공소식은 박근혜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던 모양이다.

그도 그렇듯이 『자취를 감춘 북핵시험정후』, 『국제적압박에 끊이게 영역 포기?』 등의 향설을 내둘리며 그 무슨 『북의 명백해진 변화』설이 확장적인듯 어론을 오도하면서 기고만장하여 떠들면 피뢰들이였던 것이다.

작렬하는 수소란의 섬팡이 금시 암울한 서울을 통째로 뒤집는듯 한 악몽에 휩싸인 박근혜는 배신불구하고 청와지하저워홀에 허겁지겁 달을 빙빙돌았다.

이어 위기판이 상황실에서 줄줄들과 함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을 소집한다. 필요로 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어쩐다 하며 본부장을 피워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수소란시험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위험기』와 지역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면도전』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통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이 쉬도록 고였다.

가관은 박근혜와 그 패당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 『북의 가장 아픈 금소』로 군사분제선일대에 대한 대북심리전방송제재를 『유일한 대응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사실 피뢰들은 우리의 수소란시험 후부터 『대북규탄결의안』이요, 『한미국방장관공동발표문』이요, 『국제조공을 위한 전화 회담』이요, 『대국민 담화』요, 『회상국무회의』요, 『대북군사작성 실무로론회』요 뛰어와 험한 미군과의 협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의의 수소란시험과는 아무려한 관련도 없이는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원의 원흉이면서 『한미국방장관공동발표문』이요, 『국제조공을 위한 전화 회담』이요, 『대국민 담화』요, 『회상국무회의』요, 『대북군사작성 실무로론회』요 뛰어와 험한 미군과의 협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의의 수소란시험과는 아무려한 관련도 없이는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 쏘운 미국의 한갓 개우에 불과한 청와대파워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만능보검으로 둘러친 수소란은 결코 주된 기와를